

외식업소 경영비 절감 위한 지원책 '눈길'

농식품부·aT,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대상자 모집

올해 1분기 외식업 경기지수가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식업소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외식업체인 협력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9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외식업소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소금·양파 등의 식재료를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T는 이 사업을 통해 양질의 국산 식재료 대량구매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외식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와 생산자의 안정된 판로확보에 힘을 계획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관련 법인, 협회, 조합, 번영회 등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이며, 조직화 예정인 단체·조직도 포함된다.

지원항목은 인건비·물류비·창고임차비·교육컨설팅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비용이며, 500만원 한도 내 실적행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신청조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조직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업집행 후 정산받는 방식이다.

aT 실험관 식품수출사업은 "외식업계는 우리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라며, "외식업계의 건실한 성장이 곧 우리 농식품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The외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이메일(atexpgo@at.or.kr)로 신청가능하며, 문의사항은 aT 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8)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홍남기 "추경 6월 초 확정돼야... 늦을시 내년 예산에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6월 초에 추경 심의가 진행돼 집행이 확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7, 8월로 (심사가)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경은 사업 자체가 빨리 집행해야 하는 것도 있고 내년 예산 편성의 베이스(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

요하다"면서 "5월 마무리해달라고 누차 요청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초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지금 예산안은 추경 심의도 대비해야 하고 내년 예산편성 작업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미세먼지 추경과 마성 추경 분리 심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뉴시스

NH농협생명 전북총국, 무주서 농촌순회 무료진료 실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무주군 부남면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함께 '농촌순회 무료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무료진료는 서울대학교 의료진 40여 명이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관내 농업인 조합원들이 농협생명에서 진행되는 무료 순회 진료를 통해 건강과 활기를 되찾길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생명 이숙 전북총국장은 "농협생명에서 진행되는 농촌 순회 진료 서비스가 전북도 내 의료사각지대에 골고루 제공되도록 힘쓰고 농업인 복지향상과 실익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전북농협이 23일 중앙본부에서 진행된 농가소득 추진보고회에서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쾌거'

전북농협, 농가소득 증대 우수 사무소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3일 중앙본부에서 진행된 농가소득 추진보고회에서 전북농협이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통

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전사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농협은 전북도의 농정 파트너로서 최저가격 보장제 참여 농가의 농산물을 전담 유통하고 있으며, 민선 6기부터 진행된 삼라농정의 다

양한 추진사업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20여개 과제를 발굴하여 업무를 추진해 농가소득 전국 1위 증가액·증가율을 이뤘었다.

같은 날 농가소득 증대 농·축협 중 로컬푸드 직매장 우수 농협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태양광 보급 우수에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이 선정되어 각각 수상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 경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전북농협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4,509만원으로 성장률 부문에서는 전국 1위, 금액에서는 제주,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김영태기자

'대기업 상여금' 착시에 소득 격차 줄어

올해 1-5분위 격차 2.2% 감소 기재부 "분배 여건 개선 총력"

올해 1분기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과 고소득층(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기업 상여금 지급 시기가 연말에서 1분기로 늦어졌던 결과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서가 아닌 고소득층의 상여금이 미반영되면서 격차가 좁아진 '착시 현상'이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9년 1분기 가계 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 5분위 가구는 99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2.5%, 2.2% 감소했다. 1분위-5분위 가구 간 월평균 소득 격차는 867만3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격차인

886만5000원 대비 19만4700원(2.2%) 줄어든 수치다. 올해 1분기 1분위-5분위 가구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도 399만66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격차 410만3300원 대비 10만6700원(2.6%) 줄어든 것이다.

5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가구의 몇 배에 이르지는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5.95배) 대비 소폭 낮아졌다. 매해 1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대비 낮아진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의 분배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1분위-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완화의 원인이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가 아닌 '5분위 가구의 감소'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만6700원(-2.2%),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0만3600원(-2.1%) 줄어 들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각각 3.1%, 2.8%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영 통계청 복지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노·사 합의 지연에 따라 주요 기업이 상여금을 2018년 1분기에 지급했다. 그에 따른 역 지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는 5분위 가구 상여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5분위 근로소득 증감률이 감소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전체 가구의 소득창출여력이 녹록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월평균 소득을 전체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1분기 증감률(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해 1분기 6.1%였던 근로소득 증감률이 0.5%로 둔화세가 뚜렷했다. 5.7%였던 사업소득 증감률은 -1.4%로, 3.4%였던 재산소득 증감률은 -26.0%로 감소 전환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 줄었다. 근로소득(-14.5%), 재산소득(-37.8%), 비경상소득(-90.3%)을 중심으로 악화했다. 사업소득이 10.3%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2분위 가구에 속했던 자영업자의 소득이 악화하면서 1분위로 편입된 효과라고 통계청은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4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7월 실업급여 보충성 강화, 9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을 보완하는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며 "가계 소득 증가세 확대, 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 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